

# 전문대학 속성 인식 유형 연구 : Q-방법론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Cognition Types of College University Attribute : A Q-Methodological Approach

최 석 현  
경남정보대학 부교수

Choi seok-hyun  
Kyungnam College University of Information &  
Technology, Subdivision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요약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가의 발전과 산업인재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속성 유형을 Q-방법론을 적용하여 조사 분석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류하고 유형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I. 서론

1979년 ‘중견직업인 양성’이란 목표를 내걸고 탄생한 전문대학이 격동의 산업사회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며 명실공히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성장·발전하였다. 그간 전문대학은 특색 없는 운영으로 4년제 대학의 축소판이라는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 학위중심의 교수채용으로 실무중심의 현장지향형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태동과 성장·발전을 거듭하며, 양대 고등교육의 주요 부면인 직업교육을 성실하게 감당해 오면서 최근에는 높은 취업률 등으로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의 유턴현상까지 일고 있다[1]. 전문대학은 우리나라의 급진적인 경제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 적합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10년 현재, 전문대학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337개 대학 중 145개 대학으로 43.0%, 전체 입학정원 632,203명 중 223,356명으로 35.3%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가의 발전과 산업인재양성에 매우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속성 유형을 조사 분석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류하고 유형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전문대학 속성 유형 파악 Q-방법론

### 1. Q-방법론 개관

Q-방법론은 특정 집단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동기나 가치, 태도는 어떠하며 이는 다른 집단과 어떤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갖는지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요인분석과 논리면서 많이 유사하지만 요인분석이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들을 묶어 공통의 인자를 찾아내는 것이라면 Q-방법론은 상관관계가 높은 사람들을 묶어 공통점을 찾아낸다는 점이 다르다. 즉 Q-방법론에서는 사람이 변인이 된다. 상관관계가 특정 변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객

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변인)에 따라 집단을 나누는 것과 달리 Q-방법론은 사람(A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 따라 집단을 나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관성의 구조를 파악해 유사한 구조를 가진 사람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측정방법은 대상이나 현상에 관해 기술한 진술문을 읽고 응답자들의 생각이나 태도, 가치관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 다음 유사한 응답을 보인 사람들을 묶어 집단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한다[2]. 이처럼 Q-방법론은 인간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주관성 구조를 유사성의 정도를 바탕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 조사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속성 유형을 위하여 학생들이 전문대학의 주요 속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주관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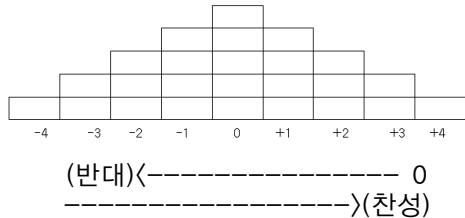
### 2. P-표본(P-sample) 및 Q-표본(Q-sample)의 선정

Q-방법론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선정한 응답자들이 P-표본이다. 일반적인 통계방법론과 달리 O-방법론은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 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표본 수가 많지 않아도 되고 표본을 선정하는 특수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연구대상자인 P-표본은 전문대학 재학생 30명으로 삼았으며, 전문대학과 관련된 P-표본들의 인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총 25문항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 3. 연구절차

이 연구의 본 조사는 3명의 조사원이 2011년 3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Q-표본인 진술문을 카드형 제시문으로 만들어 이를 응답자가 주어진 난에 빠짐없이 배치하도록 하는 강제분류(forced sort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응답자가 각기 선택한 진술문의 점수 분포가 반드시 좌우 대칭을 이루

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음에 이들을 찬성하는 무더기와 반대하는 무더기, 그리고 찬반의 정도가 중간이거나 찬반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무더기 등 모두 3개 그룹으로 나누도록 했다. 그 다음에는 찬성하는 무더기에서 가장 찬성하는 진술문을 선정하도록 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25개 진술문이 찬성과 반대의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분류하게 했다.



### Ⅲ. 연구결과 분석

수집된 자료는 Q-방법론 전문 통계프로그램인 QUANU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1>과 같이 3가지 유형이 나왔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변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각 유형별 아이겐값(eigen value)은 유형 1이 11.5, 유형 2가 1.8, 유형 3이 1.7로 나타나 유형 1이 가장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다.

표 1. 각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유형	아이겐값	총변량	누적률
1	11.52	38.41	38.41
2	1.82	6.09	44.51
3	1.74	5.81	50.32

각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표 2. 유형 1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진술문

번호	Q-진술문	표준점수
6	나는 취업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1.74
8	나는 학비와 시간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선호한다.	1.62
7	나는 조기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좋아한다.	1.43
2	나는 실기위주의 맞춤교육을 실시한다고 생각한다.	1.28
9	나는 교육기간이 짧아서 좋다	1.21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나는 취업률이 높다고 생각한다(Q 6)’는 것이었다. 이들은 ‘나는 조기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좋아한다(Q 7)’, ‘나는 교육기간이 짧아서 좋다(Q 9)’라고 판단해 빠른 취업, 높은 취업률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유형 2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진술문

번호	Q-진술문	표준점수
21	나는 전문대학이 취업이나 사회활동을 위한 기회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싫다.	2.16
2	나는 실기위주의 맞춤교육을 실시한다고 생각한다.	1.28
7	나는 조기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좋아한다.	1.20
9	나는 교육기간이 짧아서 좋다	1.03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나는 전문대학이 취업이나 사회활동을 위한 기회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싫다(Q 21)’는 것이었다. 반면에 ‘나는 실기위주의 맞춤교육을 실시한다고 생각한다(Q 2)’, ‘나는 조기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좋아한다(Q 7)’, ‘나는 교육기간이 짧아서 좋다(Q 9)’고 판단해 전문대학 교육이나 취업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전반적으로 전문대학을 싫어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 유형 3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진술문

번호	Q-진술문	표준점수
6	나는 취업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2.38
3	나는 전문대학은 개인의 적성과 특성을 살려준다고 생각한다.	1.15
25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문대에 다시 입학하는 학력 유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	1.06
7	나는 조기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좋아한다.	1.00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나는 취업률이 높다고 생각한다(Q 6)’는 것이었다. 이는 유형 1과 동일한 결과이다. 반면에 그 다음 진술문으로는 ‘나는 전문대학은 개인의 적성과 특성을 살려준다고 생각한다(Q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학력 유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Q 25)’로 답하고 있다.

### Ⅵ. 결론

유형 1, 2, 3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진술문은 ‘나는 조기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좋아한다(Q 7)’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학의 빠른 취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형 1과 3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진술문은 ‘나는 취업률이 높다고 생각한다(Q 6)’는 것이었다.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로 인하여 취업자 증가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들어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취업자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하고 있다. 현재 각 대학은 취업률이 대학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지표가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보공시제를 도입하여 대학교육여건, 입시현황, 취업률 등 주요지표를 공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별 대학의 취업률은 물론 학과별 취업률까지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취업률은 대학, 특히 전문대학의 존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3].

### ■ 참고 문헌 ■

- [1] 차갑부 외, “전문대학 4년제 대상학과 분류 타당성 조사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연구 제2010-4호 p.1, 2010.
- [2] 김영기·한선, “문화도시 만들기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Q-방법론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7권 3호 pp.48-49, 2007.
- [3] 노재성 외, “전문대학 취업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연구 제2009-8호 p.3, 2009.